

“호남경제 최악 ... ‘거뿔들이는 세정’ 말고 ‘세원 육성’ 나서야”



국감 초점
광주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탈락자 지원방안 마련을
광주지역 경제인프라 지원책 아쉽다

24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가운데 근로장려제(EITC)와 관련된 질문과 호남 지역 경제 낙후 등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호남 지역 경제 낙후성 지적과 함께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현장에로서와 청취, 세정 지원, 근로장려제(EITC)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당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호남 지역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가 4146개(6.9%)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을 비롯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 비율(35.96%), 직권과입 증가율(70.9%), 근로장려제(EITC)을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5.9%), 지난 10년간 호남권 연평균 어음부도율(0.13%)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부조사를 줄이고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자들의 현장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 세부조사 강화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를 꾀하는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 세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거뿔들이는 세정’이 아닌 ‘세원 육성’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선진 세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광주지방 국세청 관내 세원이 취약하고 기반산업이 미흡한데다 조선산업의 어려움과 함께 여수산단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세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광주청은 세수 가운데 GS칼텍스와 삼호중공업 등 대기업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너무 높다. 세수 확보도 교통세 감소와 신고세수 부족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아주 높다”며 대책을 물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세부담 능력이 있고,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자료를 중점 정리해서 새로운 세원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조선수주가 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이 약속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실현된다면 부품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세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호남지역의 올 들어 9월까지 근로장려제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 체납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가 3000세대에 달한다”며 “이는 근로장려제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의 체납등으로 이를 지원에서 먼저 공제하기 때문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금품수수 연루 직원에 대해 광주청이 시행하고 있는 ‘윈스트라이크제’를 강화해서 더욱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금품수수 금액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해 퇴출 등 좀 더 과감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여성들은 육아로 인해 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직원 300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두도록 돼 있는데 광주 시내 3곳의 세무서를 합하면 300명이 넘으므로 어린이집 마련을 위한 예산 신청을 해보라”고 주문했다.

최현배기자 lion@kwangju.co.kr



24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력 ... 주목받는 ‘광주 김치’

김치맛 원조 세계인 입맛 사로잡을 듯



김치산업 육성 수출 늘려야

한국이 신성한 ‘김치와 김장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김치 중추도시인 ‘광주 김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김치는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찌꺼기와 천연염, 풍부한 채소에서 나는 김치맛이 특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가 열릴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상승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김치타운 건립,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광주세계김치축제 개최(20회), 광주명품김치산업화 사업 등 김치 중추도시로서 노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 3년간 국비 23억원 포함 총 46억원을 지원해 김치의 품질개선, 표준제시과 및

포장디자인 개발, 유산군 및 맞춤형 김치 개발,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김치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돌브랜드 육성과 명품김치 브랜드화, 김치타운 활성화, 김치축제 활성화 및 산업화, 김치산업 글로벌화, 유통·소매·마케팅 활성화 등 5개 핵심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이 최대 과제다. 광주김치의 수출량은 2009년 1만2000달러(3t), 2010년 7만달러(14t), 2011년 1만4000달러(2t), 2012년 1만8000달러(3t), 올 들어 8월까지 1만4000달러(2t)를 유지하고 있다.

남태성 광주시 식품산업담당관은 24일 “김치가 세계 5대 식품으로 선정된 데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김치 중추도시인 광주 김치의 세계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검찰총장 후보 김진태·길태기·소병철·한명관

후보추천위 4명 추천 ... 감사위원장과 함께 다음주 인선될 듯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에 공석상태인 감사위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감사위원장은 오는 26일로 공식 두 달째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포함해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인선을 마무리짓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직 정상화를 기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EU) 순방 일정이 잡혀있

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용락 감사위원장 대행의 감사위원 임기가 12월15일까지인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기까지 약 한달이 예상되는 만큼, 순방 이후에 감사위원 후보를 지명할 경우 자칫 감사원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원은 성 대행을 포함해 5명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성 대행의 임기가 끝날 때 후임

감사위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구성 자체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위원장 후보로는 2~3명이 천거돼 박 대통령의 최종 낙점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차한성 대법관 겸 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경우 자칫 감사원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원은 성 대행을 포함해 5명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성 대행의 임기가 끝날 때 후임



24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 현 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왼쪽부터)

장관이 그 중 한 명을 이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황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은 다음 이만주말이나 내주 초까지 숙고한 뒤 다음 주 중 감사위원장과 함께 검찰총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황 장관에게 추천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55·" 15기·서울) 현 대검 차장, 소병철(55·" 15기·전남)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 15기·서울, 이상 가나다산) 전 수원지검장 등 4명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한 경우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연필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이 기가막혀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보라여행사 (순천 연세백화점 2층)	061)724-1688

[인천출발] 석가장 전세기(면산/태항산)
2013년 10/12일-11/20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CNP888-TW5] ◆구원산+태항대협곡◆
태항산 4일 749,000원 ~

[CNP888-TW5] ◆태항대협곡+평요+구원산◆
태항산/면산 5일 899,000원 ~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주세요!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하파케주일]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하파케주일]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하파케주일]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하파케주일]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하나골프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출발일 11월 28일(목) 054H ◆센슈리 1,399,000원 ~

대회일 11월 30일(토) 036H ◆골프+관광 1,249,000원 ~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 씨엠립 센슈리 호텔(5성급)
*포함 및 특전사항:
① 캄보디아 5성급 ANGKOR CENTURY HOTEL 투숙
② 골프 그린피, 가이드/기사 TIP, 11월 30일 대회당일 전통커트/캐디팀 포함
③ 캄보디아 도착비(자발금비) \$20 포함
*불포함사항: 대회당일 외 캐디팀, 캐디피, 전통차, 콜라/수츠렌탈, 기타 개인경비

대회소개
*대회코스: BOOYOUNG G.C(舊. ANGKOR LAKE G.C)
*대회진행 및 방식: 세미샷건 or 풀샷건/신페리오 방식
*대회대상: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 톱기스트, 니어리스트, 출원원 이벤트
*시상품: 트로피, 캐디백, 보스틴백, 골프클럽, 골프브릭, 왕복 항공권 등
*출원인사상: 스티크루즈 2인 무료 여행권 + 세인트니틴(6~7) 20SET
*시상품 및 경품: JDX챌린 경품, 항공권

하나투어 창립 20주년 기념 Festival

고객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 나옴 서비스도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간: 2013년 10월 1일 ~ 11월 30일

무인출발

[CBPF01-02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CCPF01-MUB] 상해/주자/소주/항주 5일 449,000원 ~

인천출발

[APP171] 9대특전NO비+호텔+디럭스호텔+세무 4/5/6일 349,000원 ~

[APP172] 호텔투어+세일먼트 보라카이 4/5일 56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공평동 1번지 (주)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 ■관광블로그인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